

농어촌의 희망 · 성장을 위해 꾸준히 변화하는 공기업 될 것

한 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시행 및 지자체와 상호 협조를 통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진장지사도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신교준 무진장지사장을 만나 올해 사업 목표와 농어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한 마디로 저희 공사는 농어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뚝'과 '농지'를 종합관리하는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총 논면적 90만 8,000ha 중 50만 3,000ha(55%)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 양·배수장 등 전국 1만 3,800여개의 농업기반시설을 갖고 있고 10만km 농업용·배수로 시설을 관리하면서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새만금 방조제를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완공했으며,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시행 및 지자체와 상호 협조를 통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시대 우리 농어촌의 희망과 성장을 위해 꾸준히 변화, 발전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조직 및 관리 대상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지요?

지사 조직은 3부(농지행복부, 지역개발부, 수자원관리부), 1지소(진안)로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지역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 증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사의 비전을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진장지사는 3개군(진안, 장수, 무주)의 행정구역과, 농업용수 관리면적 5,319ha를 관할하고, 농업인의 농업용수 이용자는 7,914명, 운영대원 14명이 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용립저수지 등 62개의 저수지, 양수장 3개소, 취입보 등 기타시설물 155개소가 있습니다.

용배수로 구조물은 용수로가 660km 중 440km(67%), 배수로가 227km 중 16km(7%)로 용수로의 현대화율은 높으나 배수로의 현대화율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올해 지사 주요 사업목표는?

올해 1월 1일자 처음 지사장으로 부임하여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임 후 관내 지역특성, 농업용수공급현황 파악, 그리고 대외기관 방문과 업무설명회 등 바쁘게 보내다 보니 상반기



지난 1월 24일 농어촌공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진안지사와 연금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관련 업무 등을 파악하고 농업인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치경영을 정착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와 기반시설현대화 지속 추진

무진장지사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9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개지구 농업용수저수지높이기 사업(진안 3개소, 장수 5개소, 무주 2개소)을 추진하여 1,690만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진안군 신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IT기술과 접목한 물관리 과학화를 위해 수위측정계, 유량계, 수위에경보시스템과 TM/TC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공급 및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설물과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유지관리 사업은 무진장지사 관리면적 5,319ha의 농업용수 공급시설 220개소(저수지 62개소, 양수장 3개소, 취입보 135개소, 관정 등 20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정비를 통해 2017년도에는 7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하여 8,000여명의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금 농어촌은 고령화와 후계농업인 부족,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기후변화 등의 재해위험에 당면하고 있으며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어촌의 경쟁력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확보 기반시설 현대화 농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사업 추진 쌀전업농 등 지원 소득증대 일조 농어촌 젊은 인력 유입 지원책 필요”

지자체에서 일괄수탁하여 추진중인 장수군 산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60억), 진안군 주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55억),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장수군 2개지구, 10억, 진안군 2개지구, 19억) 4개지구 등 지역맞춤형 농촌마을 조성사업에 29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지자체와 상생의 업무협의로 살고싶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농지은행사업

무진장지사는 1990년부터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지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등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채 농가의 고율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경영희생지원사업, 교령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은퇴를 지원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노후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연금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2억원을 투입하여 쌀전업농 및 2030세대 등을 중점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일조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완벽 추진



수리시설 개보수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특정시설 위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무진장지사의 사회봉사 또는 기부 활동을 알려 주시죠.

지사에서는 '연간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 2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우 시설 등 봉사활동 2회, 기초생활수급자 '행복한 진직상차려 드리기' 주5회 1명(2월~12월)에게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헌혈운동 전개, 명절 때 기부금 전달 등 기부활동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진장지사는 금년에도 나눔과 배려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농어촌 지역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나눔문화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어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 농어촌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인력이 부족하고 농어촌이 여러 가지 위기를 동시에 갖기에 새정부 출범과 함께 농어촌 현장에 대한 요구나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농산물의 품질 제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와의 신뢰구축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청년 창업농이 계속 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농어촌에 젊은 인력을 유입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농업인에 하고 싶은 말씀은?

무진장지사는 항상 농업인의 곁에서 희망찬 농어촌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떤 어려움도 같이 헤쳐 나갈 농업인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형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영농기반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시 반영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기전시설물 안전점검, 가뭄대책 콜센터 가동으로 능동적인 고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농어업인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 찾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앙급수를 100% 완료하였으며, 다행히도 우리지사 관내 저수율이 6월 23일 현재 60%로 향후에도 평년대비 50% 강우시 본담급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농업용수 절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수=관완 기자

신교준 지사장 프로필

- 출생년도 : 1961년
- 고향 : 전북 진안군
- 학력 : 광운대학교(경영학 전공)
- 상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등 다수
- 공사 최초입사일 : 1990. 11. 19.
- 가족관계 : 하현진 여사와 1남 1녀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급최 빨리 학교로 돌려주세요

북북한 교섭단

지난 4월 전주 우원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태윤서, 박민지)은 교차로 한국로지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경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